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독일에 태권도 魂 심는 정선채 관장 ▶2
우치동물원 기린 이름은 왜 '아린'일까 ▶7
명사의 서재-윤장현 亞인권위 이사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536호 1판 2013년 7월 24일 수요일 (음력 6월 17일)

형형색색 '청자 가로등' 강진 청자축제(7월27일~8월4일) 개막을 사흘 앞둔 23일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해안도로에 오색 청자 모형의 가로등이 설치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강진청자축제는 올해로 41회를 맞으며,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개월 남은 10·30 재보선, 선거구 절반 줄고 광주·전남은 없어

'독자세력화' 고민 깊어가는 안철수

인재영입도 어려워 기존 전략 전면 수정 후보출마 최소화할 듯

독자 정치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0·30 재·보궐선거 규모가 축소되면서 인재 영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탓이다.

특히 야당의 텃밭으로 안 의원 측이 정치세력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존재감마저 약해질 우려도 나돌고 있다. 따라서 10월 재·보선을 계기로 독자세력화의 속도를 내려 했던 기존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23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의원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모두 15곳이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이 중 최대 12곳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 '미니총선'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재판 지연과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면서 대상 지역이 계속 줄어들어 5~6곳에 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10월 재·보선 실시 가능 기한인 9월말까지 나오지 않거나 당선무효형을 피할 가능성이 커서 대상지역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측은 독자세력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됐. 안 의원 측은 애초 호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10월 재·보선에서 승리, 인재난을 해소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 했다.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경우 인재들이 몰리면서 그 파괴력이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특히 나주·화순을 유력한 10월 재·보선 지역으로 분류, 적당한 인물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참여재판 고지 누락이라는 실수로 인해 재판이 순연되면서 나주·화순 재·보선이 사실상 어려워져 안 의원 측은 광주·전남 10월 재·보선 준비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을의 이상직 의원의 경우 2심에서 1심판결(벌금 90만원)을 뒤집은 당선무효형을 받아 호남 재·보선 가능성은 살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를 방문한 안 의원도 10월 재·보선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여러 정치 일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며 "만약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가 재·보선 지역이 된다면 후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안 의원 측 관계자도 "우선 전주에 재·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에 임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수도권 재·보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은 양강 대결을 예상했던 호남과 달리 3파전으로 펼쳐져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안 의원 측 일각에서는 10월 재·보선에서 출마 후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서 선거구가 나오지 않는 등 국지전 정도의 작은 선거가 될 상황이라면 모든 힘을 쏟아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득세까지 내리면 지방살림 거덜"

뉴스초점 | 확산일로 정부-지자체 재정갈등

무상보육·SOC 축소… 광주시·전남도 세수 연간 1519억원 줄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모든 수단 동원 대응"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할 방침을 밝히자 일선 시·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토지, 건물 등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전국 지자체 세수의 평균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면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또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 중 SOC 축소 움직임마저 있어 지자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최근에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대회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광주시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등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취지와 달리 취득세율 인하가 투기나 전세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세가 인상된다면 조세 저항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취득세율을 내리면 광주시·전남도는 연간 151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 지자체의 세수 감소폭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존해 주기 위해 지방세 등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지자체의 반응은 신통치않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지방세가 많은 수도권과 소비 지역에만 유리할 뿐 광주·전남 등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단체장들은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늘어가는 무상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돼 광주시의 보육 예산은 전년 1954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486억원이 늘어났고, 전남도도 지난해보다 905억원 증가한 2857억원에 이른다. 이 중 미확보 예산은 광주시 432억원, 전남도 270억원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 정책을 늘리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지방 정부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애초 약속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중 일부 SOC 사업을 축소·변경할 방침이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광주의 현안사업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 지원 철회 발언도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대회 예산 총 635억원 중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2일 "광주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55억원 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 부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남해안 적조주의보 '경보'로 확대 발령

여수와 고흥 일대 해역을 덮친 적조띠가 갈 수록 넓게 퍼지고 있어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조경보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고흥군 나로도 동측 해역~경남 거제시 지심도 동측 해역에 적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해역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었다.

적조주의보는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바닷물 ㎖당 300개체 이상, 적조경보는 1000개체 이상이 출현하거나 주변의 가두리나 육상 양식장의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해역에서는 코클로디니움이 적조경보 기준치를 초과한 400~8500개체가 나타났다.

특히 여수 금오도 용머리 해역과 경남 통영 욕지도 북동 해역에서도 3000개체 이상이 출현했다.

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부터 평년에 비해 증가된 일조시간과 일사량, 1~2℃가량 높은 수온분포 등으로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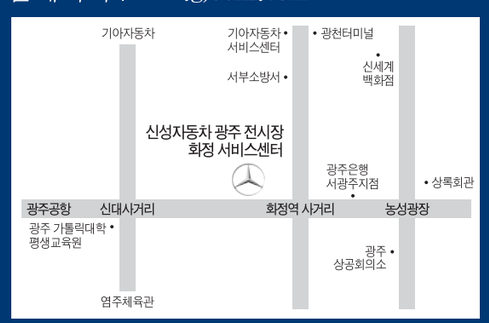
수산과학원은 적조 피해가 예상되면 현지상황에 따라 해상가두리양식장의 양식어류를 안전해역의 가두리로 옮기거나 산소발생기를 가동하고 먹이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어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

남해안 적조경보 발령
23일 고흥군 나로도 동측 해역~경남 거제시 지심도 동측 해역, 적조주의보에서 적조경보로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및 화정 서비스센터 오픈

메르세데스-벤츠이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최상의 품격과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공식 서비스,
이제 광주 전시장 및 화정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경험하십시오.

오픈 일시 | 2013년 7월 2일
문의 전화 | 광주 전시장 (062)226-0001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홈페이지 | www.gjbenz.com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광주 전시장 (062)226-0001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5